

인종주의와 식민주의*

- 알베르 멤미(Albert Memmi)의 경우 -

김 용 우

I. 식민주의 비판에서 탈식민화로

II. 식민적 인종주의

III. 인종주의와 “차이혐오”

IV. 탈식민화, 이주민 그리고 인종주의

I. 식민주의 비판에서 탈식민화로

적어도 유럽에서, 나치 독일의 패망은 폭력적인 인종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듯했다. 전후 서구 여러 국가에서 인종주의적 표현과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공적 담론에서 생물학적 인종주의는 설 자리를 잃은 듯 보였다.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와 같은 저명한 학자들의 자문을 받은 유네스코(UNESCO)는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동종에 속하며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지리적, 언어적 집단을 인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류일 뿐이라 규정했다. 그리고 유네스코는 인종(race)이란 단어를 ‘에스닉 그룹(ethnic group)’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면서 같은 종에 속하는 인간 집단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문화적 차이이며 문화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평등하다는 문화적 상대주의를 선포함으로써 생물학적 인종주의와 단절을 선언했다.¹⁾ 유네스코의 선언은 가공할 폭력과 비인간화를 불러왔던 인종주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희망에 힘을 보태는 듯했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A00127).

1) Ivan Hannaford, *Race. The History of an Idea in the West*(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pp. 385-389; Alana Lentin, *Racism and Anti-Racism in Europe*(London: Pluto Press, 2004), pp. 72-85.

그러나 인종주의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지나친 낙관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특정한 인간 집단을 정형화하고 차별하며 적대시함으로써 촉발되는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점차 위력을 잃어가는 대신 이슬람혐오주의(Islamophobia)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무슬림계 주민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인종주의의 종말은 커녕 다른 모습, 다른 이름으로 부활하는 인종주의의 탄력성과 역동성의 증거로 비춰진다.

2005년 가을 프랑스에서 발생한 ‘도시봉기’는 인종주의적 멸시와 차별이 식민주의, 그리고 포스트-식민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도시 봉기를 주도했던 이들이 주로 프랑스의 식민 지배 시기 그리고 탈식민화 이후 프랑스로 이주한 북아프리카 무슬림계의 후손들이라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늘날 프랑스가 “일상생활의 모든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종화(racialization)’를 추진하면서 인종의 문제를 회피했기” 때문이며 “프랑스 내부의 탈식민화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²⁾ 새로운 면모로 부상하고 있는 이러한 인종주의를 이전의 생물학적 인종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인종 없는 인종주의’, ‘문화적 인종주의’, ‘포스트-인종주의 시대의 인종주의’, 혹은 ‘신인종주의’로 부르던 간에 프랑스에 거주하는 무슬림계 주민들의 삶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식민과 탈식민의 역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공식적인 탈식민화가 이루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종주의를 다시 식민주의, 포스트-식민주의의 맥락에서 새롭게 조명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인종주의에 관한 어떤 연구자보다도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와의 연관성에 주목했고 또 그것을 천착했던 인물은 알베르 멤미(Albert Memmi)이다. 1920년 프랑스의 식민 지배(보호령)를 받고 있던 튀니지의 유대인 계통에서 출생한 멤미는 알제리의 알지에(Algiers)대학과 프랑스의 소르본(Sorbonne)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파리10대학(Nanterre)에서 20년이 넘게 교수로 재직

2) Anchille Mbembe, “Figures of Multiplicity: Can France Reinvent Its Identity?”, Charles Tshimanga, Didier Gondola, Peter J. Bloom (eds.), *Frenchness and the African Diaspora: Identity and Uprising in the Contemporary France*(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9), p. 55.

했다.³⁾ 멤미는 작가, 철학자, 그리고 사회학자로서 거의 30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세상에 내놓았고 주요 저작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됨으로써 이제 세계적 명성을 누리고 있다. 1953년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추천사와 함께 출간된 『소금기둥』은 멤미의 작가로서의 데뷔작이었지만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⁴⁾ 자전적인 성격을 지닌 『소금기둥』으로부터 시작해 이후 줄곧 그의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식민지의 유대인으로서 갖게 된 식민주의, 지배와 피지배, 정체성, 동화, 혼종의 문제였다.⁵⁾

1957년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의 추천사와 함께 출간된 『식민자의 초상에 뒤이은 피식민자의 초상』(이하에서는 『피식민자의 초상』으로 약기함)은 멤미에게 최고의 명성을 선사한 저술이 되었다.⁶⁾ 튀니지가 독립한 지 1년 후, 그러나 알제리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식민 상황 속에서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비인간화로 치달고 있는 모습을 식민자와 피식민자라는 두 주역이 만들어가는 일종의 비극처럼 그려낸 이 저작은 식민주의의 해체만이 피식민자와 식민자 모두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웅변한다. 흔히 에메 세제르의 『식민주의에 대한 연설』, 프란츠 파농의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과 비견되는 『피식민자의 초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분야의 고전으로 자리잡았다.⁷⁾

『피식민자의 초상』에서 멤미는 식민 상황과 식민 관계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가 인종주의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식민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인종주의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식민자의 초상』은

3) 멤미의 경력에 대해서는 Albert Memmi, *Le nomade immobile*(Arléa, 2000).

4) Albert Memmi, *La statue du sel*(Corréa, 1953). 국역본은 송기형 역, 『소금기둥』(중앙일보사, 1983). 『소금기둥』은 멤미의 저작 가운데 유일한 국역본이다.

5) Lia Nicole Brozgal, *Against Autography: Albert Memmi and the Production of Theory*(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3); Aimée Israel-Pelletier, "Assimilation, Hospitalit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in Albert Memmi", *French Forum*, Vol. 38, No. 1-2(2013), pp. 205-219; Catherine Déchamp-Le Roux, "De l'expérience vécue à l'universel", *Journal of French and Francophone Philosophy/Revue de la philosophie française et de langue française*, Vol. 19, No. 2(2011), pp. 17-36.

6) Albert Memmi, *Portrait du colonisé précédé de portrait du colonisateur*(Corréa, 1957; Gallimard, 1985).

7) Aimé Césaire, *Discours sur le colonialisme*(Présence africaine, 1955); Franz Fanon, *Les damnés de la terre*(Maspero, 1961).

식민주의 자체에 대한 논의로 평가된 나머지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관계에 대한 멤미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⁸⁾ 멤미의 인종주의론은 식민주의에 대한 성찰의 과정에서 그 골격을 형성했고 이후 흑인, 프롤레타리아, 여성, 노예를 비롯한 피지배자의 상황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일반화되고 체계화되었다. 이렇게 모습을 정비한 멤미의 인종주의론의 독창성은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거나 그렇다고 상상되는 생물학적,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 지리적 차이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심, 즉 “차이혐오(hétérophobie)”를 인종주의의 핵심으로 파악한 데 있다. 근대 서구에서 출현한 인종학(raciology)을 비롯한 생물학적 인종주의는 이 “차이혐오”라는 넓은 의미의 인종주의의 한 특수한 형태에 해당될 뿐이다. 이 글은 먼저 멤미의 방대한 저술 가운데 『피식민자의 초상』과 『인종주의』를 중심으로 그의 인종주의 이론의 전개를 추적하면서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⁹⁾

『피식민자의 초상』이 출간된 지 50년 가까이 흐른 시점에서 멤미는 그 후속편이라 할 『아랍-무슬림과 몇몇 다른 탈식민자의 초상』(이하 『탈식민자의 초상』으로 약기함)을 내놓았다.¹⁰⁾ 여기서 멤미는 한때 식민통치를 겪었던 아랍-이슬람 국가의 혼란과 부패, 무능력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프랑스 내의 아랍-무슬림계 이주민을 경멸에 찬 어조로 공격하고 프랑스 사회에 동화하는 길만이 이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변한다. 『피식민자의 초상』에서 보였던 멤미의 정교하고도 균형 잡힌 감각의 흔적이 사라진 『탈식민자의 초상』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거나 아니면 비판적이었다. 『탈식민자의 초상』의 한 평자는 멤미를 “인종주의자”로 비판한 것은 역설적이기까지 하다.¹¹⁾ 그러나 『탈식민자의 초상』의 평자들은 멤미의 논의를 이 저서 자체의 맥락에서 접근할 뿐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에 대한 멤미의 논의라는 전반적인 맥락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에 대부분의

8) 예컨대 Les Back, John Solomos (eds.), *Theories of Race and Racism. A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Tania Das Gupta et al. (eds.), *Race and Racialization. Essential Readings*(Toronto: Canadian Scholars' Press, 2007) 처럼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를 다루고 있는 선집에서도 멤미의 글은 빠져 있다.

9) Albert Memmi, *Le racisme: Description, définition, traitement*(Gallimard, 1982).

10) Albert Memmi, *Portrait du décolonisé arabo-musulman et de quelques autres* (Gallimard, 2004).

11) Jina Jadallah, “Shibboleth within Albert Memmi’s Universalism”, *Jadaliyya*(08 Oct. 2011).

평자들의 눈에 『피식민자의 초상』과 『탈식민자의 초상』 사이에 심대한 단절이 부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에 관한 멤미의 논의를 배경으로 삼아 『탈식민자의 초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II. 식민적 인종주의

『피식민자의 초상』에서 멤미의 목표는 식민 지배 상황이 어떻게 “식민자와 피식민자를 벗어날 수 없는 의존의 공간 안에 엮어 놓고 이들 각자의 특징을 만들어내며 이들의 행동을 규정”하는지를 추적하는 데 있다.¹²⁾ 그리고 이 과정에서 멤미는 인종주의야말로 이러한 식민 지배를 지탱하며 작동시키는 근본 요소라는 논리로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긴밀히 연결시킨다. 멤미가 볼 때 인종주의는 식민주의에서 나타나는 우연한 세부사항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식민주의와 “동질적 요소이며”, “식민 현상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자 식민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¹³⁾ 한마디로 “인종주의는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자를 연결하는 근본적인 관계를 요약하고 또 상징한다.”¹⁴⁾

멤미가 이처럼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를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식민 상황과 식민 관계에 대한 멤미의 분석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멤미의 논의는 식민주의가 무엇보다도 경제적 기획이라는 점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기획의 목적은 식민지에서 식민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 식민자, 그러니까 무력으로 획득한 식민지로 이주하는 유럽인들은 누구인가? 미개한 지역으로 용감하게 진출해 문명의 씨앗을 뿌리는 “고귀한 탐험가” 혹은 “선구자”일까? 멤미에게 이러한 식민자의 초상은 허구이다. 모국을 떠나 식민지로 오는 유럽인들은 무엇보다도 “더 편안한 삶을 찾아 떠난” 여행자들이다.¹⁵⁾ 멤미가 볼 때 어떤 학자들보다 이들 여행자들이야말로 식민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를 몸소 내리는 존재들이다. 이들에게 식민지는 “많이 벌면서 지출은 적은 곳이다.” 또한 식민지는 “직장이 보장되고

12) Memmi, *Portrait du colonisé*, p. 13.

13) *Ibid.*, p. 93.

14) *Ibid.*, p. 89.

15) *Ibid.*, p. 29.

임금은 높으며 승진이 빠를 뿐 아니라 사업이 번창하는” 장소이다.¹⁶⁾

그렇다면 식민자가 누리는 이러한 이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식민 상황에서 구조화된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관계에 그 답변의 열쇠가 있다. 식민자의 이익은 피식민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특권에서 나온다. 뎀미는 이렇게 말한다. “식민자의 생활수준이 높다면 그것은 피식민자의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식민자가 풍족한 노동력과 순응적인 많은 하인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피식민자들이 멋대로 착취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 식민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식민자가 관리직에 쉽게 오를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직책이 식민자를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자 피식민자들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식민자가 더 자유롭게 숨 쉬면 설수록 피식민자는 더욱 더 질식당한다.”¹⁷⁾

그러나 식민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특권은 정당하지 않다. 뎀미는 정당성의 부재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먼저 식민자는 외국인으로 다른 나라에 들어와 자신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원주민들의 자리를 강탈했고 원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희생시켜 엄청난 이권을 챙기는 데 성공한 자들이다. 뿐만 아니다. 식민자는 원주민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전통이나 법에 의거하기는커녕 그것을 전복하고 자신의 법으로 대체했다. 이 점에서 식민자는 “이중적으로 부당하다. 그는 특권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부당하게 특권화된 존재이기도하다. 한마디로 그는 찬탈자이다.”¹⁸⁾

그러나 식민지에 거주하는 모든 유럽인들이 동일한 정도의 이익과 특권을 누리며, 따라서 이들 모두를 찬탈자로 규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뎀미는 식민지에 거주하는 유럽인들을 일단 세 범주로 나눈다. “식민지 거주자(le colonial), 식민지배자(le colonisateur), 그리고 식민주의자(le colonialiste)”가 그것이다.¹⁹⁾ 먼저 “식민지 거주자”는 식민지에 살고 있는 유럽인이지만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로 상정된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피식민자와 다르지 않으며 기질이나 도덕적 신념 때문에 피식민자들에게 호의적인 유럽인들이다. 당시 튀니지에 살고 있던 이탈리아 이주민들이 유사한 예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뎀미에 의하면 이렇게 상정된

16) *Ibid.*, p. 30.

17) *Ibid.*, pp. 33-34.

18) *Ibid.*, p. 34.

19) *Ibid.*, p. 35.

“식민지 거주자”는 실제 존재할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식민 상황 자체가 일견 중립적이고도 모호한 존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식민지의 유럽인들은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식민지의 제도와 관례,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 특권적 존재가 된다.”²⁰⁾

그러므로 식민지에 거주하는 모든 유럽인은 일단 식민지배자이다. 그러나 피식민자들의 비참한 삶을 목도하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특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식민지배자들이 있다. 뎀미는 이들을 “스스로 거부하는 식민지배자(le colonisateur qui se refuse)”라 부른다.²¹⁾ 그러나 식민 상황을 거부하고 저항하며 심지어는 전복을 시도하는 식민지배자는 드물다. 원주민의 독립과 탈식민화에 성공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난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저항 자체가 식민지배자에게는 스스로를 “배신자”로 만드는 일이며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²²⁾ 이 경우 식민지배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순히 식민지를 떠나는 일이다.

식민지를 떠나지도 식민 상황에 저항하지도 않고 식민지에 머물 경우 그 식민지배자는 곧 식민주의자가 된다. 뎀미가 볼 때 식민주의자는 “스스로 식민지배자임을 인정하는 자(le colonisateur qui s'accepte)”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다.²³⁾ 달리 말해 식민주의자는 스스로가 “정당성을 상실한 특권적 존재, 즉 찬탈자”임을 인정하고 합리화해야 하는 존재이다.²⁴⁾ 그러나 찬탈자 스스로가 찬탈 행위를 정당화하기란 쉽지 않다. 뎀미가 “네로 콤플렉스(le complexe de Néron)”라 부른 모순에 식민주의자가 빠지기 쉬운 이유이기도 하다. 식민주의자는 “찬탈자의 전형인” 고대 로마 황제 네로처럼 자신이 찬탈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찬탈당한 자들을 억압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찬탈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더욱 부각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식민주의자들은 찬탈당한 자들, 즉 피식민자들을 절멸하고 싶은 욕망에 빠지지만 이는 식민 상황 자체의 종말을 의미하며 동시에 자신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일이다.²⁵⁾

20) *Ibid.*, p. 42.

21) *Ibid.*, p. 43.

22) *Ibid.*, p. 45.

23) *Ibid.*, p. 67.

24) *Ibid.*, p. 73.

25) *Ibid.*, pp. 74-75.

“식민주의라는 질병의 최고의 표현인” 식민주의자에게 남겨진 선택은 무엇인가? 어떻게 찬탈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편으로는 “찬탈자의 장점이 정당성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함을 입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찬탈당한 자의 단점이 너무 심각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강변하는 길뿐이다.²⁶⁾ 멬미가 볼 때 인종주의의 자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종주의는 찬탈자의 정당성 없는 특권을 합리화하는 데 필수적인 편견을 만드는 가장 유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멬미가 “인종주의는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자를 연결하는 근본적인 관계를 요약하고 또 상징한다”고 평가할 수 있었던 근거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²⁷⁾

멬미는 식민 상황 속에서 출현하는 인종주의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모국 유럽에서 형성된 인종주의와 대비한다. 식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에서 인종주의는 인종학처럼 이론적이고 교조적인 성격을 띠며 언뜻 보기에 “거의 아무런 열정도 없는” 추상적 이념이라면 “식민적 인종주의(racisme colonial)”는 구체적이며 “일상적이지 체험되는 것이다.”²⁸⁾ 식민적 인종주의는 식민주의자의 생존에 필수적인 전제조건과 마찬가지로 늘 일상의 세계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습득되고 행해지며 교육을 통해 확립되고 인정된 행동과 반응의 총체인 식민적 인종주의는 매우 사소한 행동과 말에조차도 대단히 본능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식민주의자들의 인격의 근본적인 구조 가운데 하나로 보일 정도이다.”²⁹⁾

식민주의자의 삶 전체에 깊이 침투해 식민지의 일상을 지배하는 식민적 인종주의를 분석하기 위해 멬미는 다음과 같은 세 요소를 제시한다. 첫째,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확정한다. 둘째, 피식민자를 희생시키면서 식민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차이에 **가치를 부여한다**. 셋째, 이러한 차이가 결정적임을 확고히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행동함으로써 차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든다.³⁰⁾

멬미는 세 가지 요소 모두가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인종주의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6) *Ibid.*, p. 74.

27) *Ibid.*, p. 89.

28) *Ibid.*, p. 89.

29) *Ibid.*, pp. 89-90.

30) *Ibid.*, p. 90. 강조는 원문.

두 집단의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찾는 것은 그 자체로 인종주의는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차이를 찾는 일은 인종주의적 맥락 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얻게 되고 각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식민주의자는 ...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건설에 기여하기는커녕 피식민자를 계속 격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의지한다. 피식민자는 폄하되고 식민자는 찬양받는 이러한 차이들에서 식민자들은 피식민자를 거부할 정당성을 찾는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일 것이다. 식민주의자들을 특징짓고 피식민자와 대조될 수 있는 특정한 풍습이나 역사적 혹은 지리적 요소들이 일단 분리, 확정되고 나면 이 둘 사이의 간극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식민주의자들은 이러한 풍습이나 요소들에게서 역사와 시간을 박탈함으로써 진화 가능성을 제거한다. 사회학적 사실이 생물학적 혹은 더 적합한 표현을 사용하면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명명된다. 풍습이나 역사적, 지리적 요소들이 피식민자의 **본질**로 선언되는 것이다. 단번에 식민자와 피식민자라는 두 주인공의 본질적 존재 방식에 기초한 식민관계는 **결정적인 범주**가 된다.³¹⁾

요컨대 맴미의 식민적 인종주의론의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식민 지배의 맥락에서 작동하는 인종주의는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고 피식민자를 착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인종주의는 지배와 특권, 그리고 이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둘째, 식민주의자가 피식민자들과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에 가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 차이를 본질화, 절대화하는 이유 역시 식민 지배를 통한 특권과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피식민자들의 변화 가능성과 역사성 자체를 부정하는 차이의 본질화와 절대화를 식민적 인종주의의 핵심 요소로 파악하는 맴미의 견해는, 이후 좀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그의 인종주의론의 장점이자 한계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맴미는 식민 지배의 일상 속에서 인종주의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차이뿐 아니라 문화, 역사적, 지리적 차이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측면들을 동원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1980년대 이후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문화적, 종교적 차이가 ‘인종화’에 동원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문화적 인종주의’, ‘인종 없는 인종주의’, ‘신인종주의’ 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이 출현했다. 그러나 맴미는 식민 지배의 구조 속에서 인종주의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혹은 존

31) *Ibid.*, pp. 90-91. 강조는 원문.

재한다고 상상되는 모든 차이들이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 전부터 파악할 수 있었다.

III. 인종주의와 “차이혐오”

『피식민자의 초상』에서 멤미는 인종주의 자체라기보다는 식민적 인종주의에 관심을 집중했고 식민주의를 다루는 전체 논의의 구성에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멤미의 식민적 인종주의에 관한 논의는 이후 그의 인종주의론의 기본 골격을 형성했다. 멤미가 인종주의 자체를 체계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피식민자의 초상』이 출간된 지 거의 25년이 흐른 뒤에 간행된 『인종주의』에서였다. 그러나 두 저작 사이의 기간 동안 멤미는 인종주의라는 주제를 방기하기는커녕 오히려 훨씬 더 넓은 시야에서 탐구를 진행해왔다. 이 시기 출간된 멤미의 저작들은,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관계에서 유대인, 흑인, 노예, 여성, 프롤레타리아 등을 비롯한 소수자와 피지배자에게로 그의 관심이 확장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³²⁾ 동시에 그의 인종주의론 역시 식민 상황을 넘어 지배와 피지배라는 더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재검토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 저작 사이의 기간에 멤미가 백과사전이나 혹은 다른 지면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인종주의의 정의를 내리고 그 본질을 밝히려는 시도를 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³³⁾

멤미가 1964년과 1972년에 각각 발표한 글들은 『피식민자의 초상』에서 제시되었던 인종주의의 세 요소를 뼈대로 삼으면서도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식민주의의 맥락을 넘어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둘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1964년 글에서 멤미는 인종주의를 이렇게 정의한다. “인종주의는 특권이나 공격성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비난자(즉 인종주의자)에게는 이득이 되고 희생자에게는 손실이 되도록 실제적인 혹은 상상된 차이에 최종적이고도 일반화된 가치를 부여하는

32) *Portrait d'un juif*(Gallimard, 1962, 1966); *L'homme dominé*(Gallimard, 1968); *La dépendance: Esquisse pour un portrait du dépendant*(Gallimard, 1979).

33) 에켄대 Albert Memmi, “Le racisme dans le monde, essai de définition”, *La Nef*, No. 19-20(1964), pp. 41-47; “Racisme”, *Encyclopaedia Universalis*(Éd. Encyclopædia Universalis, 1972), pp. 915-916. 이 두 글은 각각 *Le racisme*, pp. 158-172, 146-157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것이다.”³⁴⁾

한편 1972년 백과사전에 기고한 글에서 뎀미의 정의는 약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인종주의는 공격성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비난자에게는 이득이 되고 희생자에게는 손실이 되도록 실제적인 혹은 상상된 **생물학적 차이**에 최종적이고도 일반화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³⁵⁾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 데 반해 후자에서는 그 차이를 생물학적인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뎀미가 1972년의 글에서 생물학적 차이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뎀미는 생물학적 차이를 인종주의의 정의에 새롭게 삽입함으로써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차별과 지배만이 인종주의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일까? 아래에서는 1982년 출간된 『인종주의』에 개진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뎀미의 인종주의론의 성격을 평가하고자 한다.

두 정의가 공유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피식민자의 초상』에서 뎀미가 식민적 인종주의를 거론할 때 제시된 것이며 달라진 점이라면 이를 식민 지배의 구조라는 테두리를 넘어 일반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뎀미가 볼 때 인종주의는 억압과 지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뎀미에 의하면 억압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인종주의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명제 속에 요약적으로 표현된다. “만약 내가 당신을 지배한다면 당신이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고 당신과 나 사이의 차이가 그것을 보증한다.”³⁶⁾ 가령 흑인을 선천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폄하하는 것은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피식민자가 기술 분야에는 본질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치부되는 것은 식민 지배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며 프롤레타리아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숙한 존재로 공격된다면 그것은 유산자계급의 지배가 도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인종주의는 억압과 지배를 위한 “알리바이”이며³⁷⁾ “지배 이데올로기이자 지배의 현실적인 표현이다.”³⁸⁾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종주의는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사회, 정치, 경제적 지배

34) *Le racisme*, p. 158.

35) *Ibid.*, pp. 146-147. 강조는 필자.

36) *Ibid.*, p. 58.

37) *Ibid.*, p. 169.

38) *Ibid.*, p. 58.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인종주의는 특정한 상황에 적응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끈질기게 잔존한다.

둘째, 인종주의는 필연적으로 인종주의자에게는 이득을, 희생자에게는 손실을 가져온다. 비록 추구하는 이익과 이점이 당장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중립적이거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인종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인종주의를 통해 인종주의자에게 돌아오는 이득과 이점은 예컨대 노예제나 식민주의의 경우처럼 경제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심리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측면 등 “타자를 폄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다.”³⁹⁾ 예컨대 이러한 이점 가운데는 타자를 경멸하고 이들을 외부적인 위협 세력으로 만듦으로써 내부의 결속을 회복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타자를 악의 구현으로 삼아 악을 외부화함으로써 특정 집단이나 사회가 느끼는 두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기 내부에서 제거하고 싶은 부분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고 폄박함으로써 스스로를 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⁴⁰⁾

셋째, 인종주의는 희생자에게 부여된 특징을 일반화, 절대화, 영속화한다. 예컨대 어떤 흑인 노동자가 흑인이기 때문에 특정한 기술을 익히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흑인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어떤 여성에게 그녀가 여성이기 때문에 “머리칼은 길지만 생각은 짧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여성들이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⁴¹⁾ 특정 여성이 학문이나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했을 때 이를 예외적인 일이라 평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나아가 인종주의자가 희생자에게 부여한 어떤 성격이나 특징은 최종적이며 변화 불가능하고 따라서 영속적이다. 인종주의자들이 흑인은 기술을 익히지 못한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현재 그럴 뿐 아니라 영원히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함축한다.⁴²⁾ 인종주의자들에게 생물학적 비방이 매력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정 인간 집단의 열등성은 그 집단의 생물학적 특징에 내장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열등성은 영속화된다. 생물학적 특징이 숙명이 되는 것이다.⁴³⁾

39) *Ibid.*, p. 61.

40) *Ibid.*, pp. 65-66.

41) *Ibid.*, p. 109.

42) *Ibid.*, p. 112.

43) *Ibid.*, pp. 112-113.

마지막으로, 맴미의 인종주의론은 차이를 중심축으로 삼아 구성된다. 맴미가 볼 때 인종주의자들은 차이가 존재할 때 그것을 활용하며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발명해낸다.⁴⁴⁾ 그러므로 인종주의적 주장에서 차이는 실제적일 수도 상상의 산물일 수도 있다. 또한 인종주의자는 실제로 존재하던 상상된 것이든 간에 차이를 일반화하고 변화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맴미가 볼 때 실제 존재하는 차이는 그것이 생물학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차이를 지적한다고 인종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차이를 부정한다고 반인종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차이를 이용할 때 인종주의자가 된다.”⁴⁵⁾

식민적 인종주의에 대한 탐색에서 출발해 인종주의 자체로 논의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맴미의 인종주의론이 이룩한 가장 독창적인 성과는 인종주의의 뿌리를 “차이혐오”에서 찾은 점일 것이다. 맴미가 “차이혐오”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그것을 넓은 의미의 인종주의로 정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종주의의 문제에 접근할 때 무엇보다도 차이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맴미가 볼 때 인간은 늘 자신과 다른,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집단을 만나게 된다. 이는 일종의 “인간 조건”이다.⁴⁶⁾ 이 경우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은 곧 공격성으로 표현되며 인종주의적인 태도가 출현할 조건이 형성된다.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인종주의의 조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맴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모두는 늘 인종주의자인가? 아니다. ... 우리 모두는 늘 인종주의의 유혹에 직면해 있는가? 그렇다.”⁴⁷⁾ 맴미가 볼 때 인종주의의 끈질긴 생명력과 극복의 어려움 역시 인종주의가 인간 조건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맴미에게 인종주의는 특정 시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인간 조건과 결부되어 있기에 인종주의는 모습을 달리하면서 어떤 시기에도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서 맴미는 인종주의를 근대적 현상으로 규정하는 사람들과 견해를 달리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원(原)인종주의(proto-racism)”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고대사가가 맴미의 인종주의론에 기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⁴⁸⁾

44) *Ibid.*, p. 161.

45) *Ibid.*, p. 54.

46) *Ibid.*, p. 32.

47) *Ibid.*, p. 32.

48) Benjamin Isaac, *The Invention of Racism in Classical Antiquity*(Princeton: Princeton

서두에서 제기한 질문으로 되돌아가보면, 1964년의 정의는 넓은 의미의 인종주의로 “차이혐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 동시에 1972년의 정의는 좁은 의미의 인종주의로 생물학적 인종주의에 해당한다. “나는 인종주의와 차이혐오라는 개념 쌍을 제안하고 싶다. 여기서 인종주의는 생물학적 차이를 내세워 타자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차이혐오는 어떤 성격과 내용의 차이든 간에 그것을 내세워 타자를 배척하는 것이다. 인종주의는 차이혐오의 한 특수한 사례이다.”⁴⁹⁾ 그러나 용어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차이혐오”와 인종주의를 구분해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둘은 뿌리는 동일하다. 말하자면 인종주의의 본질은 “차이혐오”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뱀미의 인종주의론의 한계 역시 차이에 대한 그의 시각에서 연유한다. 뱀미의 인종주의론은 특정 인간 집단이 지닌 차이를 불변의 것으로 영속화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차이의 영속화, 혹은 본질화는 그 집단의 열등함이 내재적이며 본질적이라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인종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 특정 인간 집단의 열등함을 본질화하고 영속화하지 않으면서도 이들을 배제하고 지배하는 인종주의 역시 19세기 중엽 이후 서구 식민주의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어떤 인간 집단은 역사 발전에 뒤처져 미개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들의 미개함이 차이로 여겨질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교육과 지배를 통해 없앨 수 있다. 그러므로 차이는 본질적이지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사실상 문명의 이름으로 식민지인들의 차이를 압살하고 지배를 정당화했던 서구 식민주의의 가장 유명한 이데올로기 가운데 하나였다. 흔히 문명화 사명으로 합리화되는 인종주의이자 미국의 인종주의 연구자 데이비드 골드버그가 “인종적 역사주의(racial historicism)”라는 개념을 통해 포착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다.⁵⁰⁾ 뱀미의 인종주의론의 한계는 차이의 본질화와 영속화를 인종주의의 핵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차이가 아니라 평등과 보편

University Press, 2004), pp. 19–20. 또한 Miriam Eliav-Feldon, Benjamin Isaac, Joseph Ziegler (eds.), *The Origins of Racism in the West*(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10–11.

49) *Le racisme*, p. 118.

50) David Theo Goldberg, *The Threat of Race: Reflections on Racial Neoliberalism* (Oxford: Blackwell, 2009), p. 5.

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차이와 개별성을 압살하는 인종주의의 문제를 포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물론 멤미 역시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보편주의가 평등을 전제로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위협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멤미가 볼 때 이런 “자코뱅적 근시안”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이고 심리적 충격을 가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인종주의가 될 수는 없다.⁵¹⁾

IV. 탈식민화, 이주민 그리고 인종주의

2004년 『탈식민자의 초상』이 출간된 무렵 멤미의 눈에 비친 탈식민화한 국가들과 탈식민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비관적이다. 아프리카에서 신생 독립국가들이 탄생할 무렵부터 빈곤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었지만 “50년이 지난 후에도 악화된 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모두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다. “부패, 폭정, 이 폭정에서 발생한 무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 전통에 짓눌린 정신,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 외국인혐오와 소수자를 향한 박해가 거의 모든 곳에서 만연해 있다. 이 신생 국가들을 괴롭히는 굶은 상처들을 열거하는 일은 한이 없다.”⁵²⁾ 『피식민자의 초상』의 후속편이라 할 『탈식민자의 초상』에서 멤미는 이러한 비관적이고 일방적인 진단에 근거해 탈식민자의 불행의 원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탈식민자의 초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새로운 시민”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제1부에서 멤미의 주된 관심사는 신생 독립국가들과 그 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키워드들은 환멸, 부패, 빈곤, 폭압적이고 독재적인 지배자들, 군부와 일부 종교조직이 발휘하는 막강한 권력, 무능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지식인들, 우유부단하고 억압당한 문인과 문단, 인구 과잉, 대량 이주 등이다. “이주민”이란 제목의 제2부에서는 서구로 이주한 사람들과 그의 후손의 경우를 사례로 삼고 있으면서도 특히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이전 식민지 출신의 마그레핀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망명과 추방, 게토화, 통합의 실패, 종교적 보수주의, 실업, 범죄와 비행, 급진화, 테러리즘 등이 제2부의 키워드를 이루고 있다.

51) *Le racisme*(1994), p. 58.

52) Memmi, *Portrait du décolonisé*, p. 13.

전편인 『피식민자의 초상』에서 주인공이 식민 상황이라는 잘 짜여진 구조 안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식민자와 피식민자였다면 『탈식민자의 초상』에서는 상대역이 없는 1명의 주역만 등장한다. “자기 나라에 살면서 독립국가의 새로운 시민이 된 탈식민자, 다른 하늘 아래에서, 자주 이전의 식민 모국에서 거주하기를 선택한 이주민, 그리고 부모를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태어난 이주민의 아들”이 그들이다.⁵³⁾ 마치 3명의 주역이 등장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상 이들은 1명, 즉 탈식민자이다. 새롭게 독립한 국가에 살던 탈식민자는 폭정과 가난을 이기지 못해 이전 식민지 모국으로 이주한다. 이 이주자는 이전 식민지 모국에 정착하면서 2세를 낳는다. 공간과 시간을 달리하지만 3명은 1명의 변신 혹은 자기 증식일 뿐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탈식민화가 이루어졌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 식민자-탈식민자와 같은 단쌍의 구성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납득이 갈 수도 있지만, 상대역 없는 탈식민자의 초상은 심각한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이전 식민지 모국의 정치, 문화, 경제, 종교와 이러한 것들이 이전 식민지 출신 이주민과 그 후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대한 설득력 있는 초상이 그려질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탈식민자의 초상』의 전반을 관류하는 논리 역시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이미 짐작할 수 있듯이 맴미가 볼 때 탈식민자가 처한 오늘날의 곤궁과 불행의 주된 원인은 탈식민자 자신에게 있다. 식민 지배 체제는 오래 전 종말을 고했다. 물론 “식민화는 …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식민화에 덧씌우는 일은 무익하다.”⁵⁴⁾ 맴미가 볼 때 대부분의 탈식민자는 “고통주의(dolorisme)”에 빠져 있다. “고통주의”란 “자신의 고통을 과장하고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자연스러운 경향이다.”⁵⁵⁾ 말하자면 탈식민자는 자신이 처한 고통과 불행에 정면으로 대면하기보다는 그것의 원인을 줄곧 역사의 탓으로, 식민지배자의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인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맴미에게 신(新)식민주의와 같은 개념은 오늘날의 탈식민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신식민주의나 “글로벌 자본주의”와 같은 개념들은 “누추한 옷을 가리는 겉옷과 증거 서류,

53) *Ibid.*, p. 15.

54) *Ibid.*, p. 46.

55) *Ibid.*, p. 42.

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모호할” 뿐이다. 멤미에게 신식민주의는 탈식민자들의 심성을 지배하는 “고통주의”의 한 표현이자 진실을 호도하는 연막일 뿐이다. 포스트-식민주의 시대 미국의 역할에 대한 멤미의 평가 역시 맥락을 같이 한다. 비록 선의가 아니라 직접적인 식민주의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든다는 판단에서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미국은 “탈식민화를 지원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멤미는 미국이 탈식민화를 지원한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역시 한때 식민화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한다.⁵⁶⁾ 미국이 행사하는 세계적 지배력의 기반이 식민지 없는 식민주의에 있다는 일부의 비판은 멤미에게는 근거 없는 비난에 지나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멤미는 식민주의가 일정 정도 문명화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멤미가 볼 때 “서구의 식민화는 기술적, 정치적 혹은 문화적 분야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는 문명들 사이의 접촉에서 벌어지는 일이다.”⁵⁷⁾ 그러나 멤미의 이러한 주장은 식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논리를 약간 누그러뜨려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식민주의가 문명화에 기여했다는 논리는 피식민자들의 자생적 발전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식민주의가 주도한 문명화의 목적은 착취에 있기에 불가피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흥미롭게도 멤미의 주장은 2005년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던 법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흔히 ‘2005년 2월 23일 법(la loi du 23 février 2005)’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법은 북아프리카의 식민지에서 프랑스가 한 긍정적 역할을 학교 교과과정에 반영할 것을 명시했다.⁵⁸⁾

그러나 『탈식민자의 초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오늘날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서술이다. 멤미에게 이주민은 일차적으로 신생 독립국가의 폭정과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프랑스로 건너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는 초점을 탈식민화 이후의 이주민에 둠으로써

56) *Ibid.*, p. 44.

57) *Ibid.*, p. 45.

58)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Romain Bertrand, *Mémoires d'empire: La controverse autour du 'fait colonial'*(Éd. du Croquant, 2006); Claude Liazu, Gilles Manceron (dir.), *La colonisation, la loi et l'histoire*(Syllepse, 2006) 참조. 국내의 연구로는 김용우, 『식민주의의 부패랑과 역사학: 프랑스 2005년 ‘2월 23일 법’을 둘러싼 논쟁』, 『서양사론』 제115호(2012. 12), 41-62쪽.

식민 지배 시기 이미 시작된 이주의 역사를 외면하려는 시도이다. 북아프리카 피식민자들의 이주는 19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예컨대 1962년 알제리가 독립한 해 프랑스에 거주하던 알제리 출신 이주민의 수는 436,000명에 달했다.⁵⁹⁾ 이들 이주민의 대다수는 식민화로 인한 알제리 사회, 경제 구조의 파괴와 이에 따른 대량 노동 예비군의 발생이라는 ‘밀어내기 효과’와 이 기간 프랑스 사회에 고질적이었던 노동력 수급 부족이라는 ‘당기기 효과’의 상호작용의 산물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⁶⁰⁾ 프랑스로의 이주를 촉진했던 식민 지배의 배경을 비롯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대신 맴미는 그것을 신생 독립국가의 무능과 빈곤의 탓으로 돌린다.

히잡을 착용한 여성들과 이주민 2세대에 이르러서는 맴미의 비판은 신랄함을 넘어 경멸의 뉘앙스마저 풍긴다. 맴미는 이슬람계 이주민 여성들이 착용한 히잡을 “휴대용 게토(ghetto portatif)”라 비난한다. 맴미가 볼 때 히잡은 “무슬림 이주민이 겪고 있는 정체성 문제를 폭로하는 것이자 대다수 사람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이미 흔들리고 있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⁶¹⁾ 심지어 맴미는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존재로 파악한 이주민 2세를 “좀비(zombi)”라 낙인찍는다.

이주민의 아들은 일종의 좀비이다. 그는 태어난 땅에 깊은 애착심을 느끼지 못한다. 그는 프랑스 시민이다. 그러나 그는 대다수 같은 시민들의 문화를 부분적으로만 공유하며 이들의 종교는 전혀 공유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그가 완전히 아랍인인 것도 아니다. 그는 아랍어를 거의 말하지 못한다. 그는 여전히 아랍어를 사용하는 부모님의 질문에 프랑스어로 대답하거나 제3자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두 언어가 뒤섞인 말로 답한다. [...] 부모님의 고국으로 여행을 하더라도 그는 그곳이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이다. 그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어떤 경우에도 그곳에 정착하지 못한다.⁶²⁾

반면 맴미는 이주민의 통합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를 인종주의적 차별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 자신이 수십 년에 걸쳐 관심을 기울였던 인종주의는 이주민과 그 후손들을 다루는 부분에서 거

59) 박단,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서강대학교 출판부, 2013), 153쪽.

60) Neil MacMaster, *Colonial Migrants and Racism: Algerians in France, 1900-62* (London: Macmillan, 1997), p. 3.

61) Memmi, *Portrait du décolonisé*, p. 136.

62) *Ibid.*, pp. 179-180.

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식민주의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친 고전 『피식민자의 초상』과 과도한 일반화와 정형화로 탈식민자를 공격하는 『탈식민자의 초상』 사이의 건널 수 없어 보이는 이 간극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그것은 “젊은 급진주의자에서 늙은 보수주의자로의 변신”이라는 상투적인 문구를 다시 확인해주는 예인가?⁶³⁾ 『탈식민자의 초상』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극소수의 찬사를 제외하면 침묵 아니면 비판 일색이었다.⁶⁴⁾ 그런데 대다수의 비판자의 경우, 『탈식민자의 초상』의 문제점을 자체의 맥락에서 접근할 뿐 멤버의 사상 전반이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 놓지 않는다. 이들에게 『탈식민자의 초상』에서 전개된 멤버의 논의는 이전의 저작들에서 개진된 논의와 단절된 것이거나 이전의 논의로부터의 일탈로 간주된다.⁶⁵⁾ 그러나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탈식민자의 초상』에서 본격화될 멤버의 주장들의 몇몇 징후는 『피식민자의 초상』이나 『인종주의』와 같은 저작에 이미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타계한 남아공 출신의 노벨상 수상 작가 나딘 고디머(Nadine Gordimer)는 『탈식민자의 초상』이 출간되기 1년 전인 2003년 『피식민자의 초상』의 영역본에 새로운 서문을 썼다.⁶⁶⁾ 이 서문에서 그녀는 흥미롭게도 멤버가 이 저

63) Sina Salessi, “The Postcolonial World and the Recourse of Myth: A Critique of Albert Memmi’s *Decolonization and the Decolonized*”, *Third World Quarterly*, Vol. 34, No. 5(2013), p. 929.

64) 찬사를 보낸 대표적인 예는 Alain-Gérard Slama, “Le colonisé imaginaire”, *Le Figaro Magazine*(20 juillet 2004), p. 49. 멤버에 대한 평가에 있어 『탈식민자의 초상』의 경우를 도외시하거나 크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는 예컨대 Israel-Pelletier, “Assimilation, Hospitalit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in Albert Memmi”; Déchamp-Le Roux, “De l’expérience vécue à l’universel”; Yvan Gastaut, “Albert Memmi, un regard postcolonial”, Nicolas Bancel et al. (dir.), *Ruptures postcoloniales: Les nouveaux visages de la société française*(La Découverte, 2010), pp. 88-95.

65) 예컨대 Sheila Walsh, “Prophetic Voice?: Albert Memmi’s *Portrait du Décolonisé Arabo-Musulman et de quelques Autres*”, *Journal of Franco-Irish Studies*, Vol. 3(2013), pp. 55-71; Sina Salessi, “The Postcolonial World and the Recourse of Myth”; Keally McBride, “Albert Memmi in the Era of Decolonization”, *Journal of French and Francophone Philosophy/Revue de la philosophie française et de langue française*, Vol. 19, No. 2(2011), pp. 50-51.

66) Nadine Gordimer, “New Introduction”, Albert Memmi,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London and New York: Earthcan, Kindle Edition, 2010), Kindle Locations, pp. 420-438.

작을 집필했을 당시인 1950년대에 신식민주주의의 문제를 내다 볼 수 있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여기에 대한 고디머 스스로의 답변은 부정적이다. 멤미의 식민주의 분석은 철학적이고 심리적 차원에 머물렀고 “식민주의 경제학”의 중요한 측면들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디머의 이러한 진단은 『탈식민자의 초상』에서 멤미가 왜 신식민주주의를 탈식민자들의 불행과 곤궁을 가리기 위한 연막 정도의 개념으로 평가절하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멤미의 저작 곳곳에서 암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일종의 유럽중심주의이다.⁶⁷⁾ 『탈식민자의 초상』에서 멤미는 식민지를 지배하는 유럽의 모습을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유럽 전반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⁶⁸⁾ 심지어 멤미는 식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피식민자가 식민자의 문화에 동화되는 길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것이야말로 “보편주의적이고도 사회주의적인 향기를 풍기는 선형적으로 훌륭한” 것이라 평가한다.⁶⁹⁾ 또한 1974년에 출간된 한 저서에서 멤미는 이렇게 말한다. “제3세계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상은 서구의 생활수준과 그 풍습마저 따라잡는 것이다.”⁷⁰⁾ 『탈식민자의 초상』에서 멤미의 유럽중심주의는 좀 더 명시적이다. “서구는 과학적, 기술적, 군사적, 그리고 심지어 철학적으로 상당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과학의 진보와 보편주의적 도덕으로부터 강한 영감을 받은 서구의 세계관이야말로 좋건 나쁘건 이 지구의 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고 있다.”⁷¹⁾

만약 서구 문명은 여전히 보편이며 이주민들 역시 이러한 서구 문명의 품안으로 들어오는 길이야말로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최선의 방안이라는 관점에 선다면, 오늘날 서구 사회로의

67) Dino Constantini, *Mission civilisatrice. Le rôle de l'histoire coloniale dans la construction de l'identité politique française*(Découverte, 2008), pp. 193-223. 프랑스의 한 역사가는 멤미의 유럽중심주의를 이렇게 표현한다. 멤미의 분석 도구는 “식민자의 역사를 모든 역사의 척도로 삼는 것일 뿐이다.” Éric Savarese, *L'ordre colonial et sa légitimation en France métropolitaine. Oublier l'autre*(L'Harmattan, 1998), p. 268.

68) Memmi, *Portrait du colonisé*, p. 155.

69) *Ibid.*, p. 159.

70) Albert Memmi, *Juifs et Arabes*(Gallimard, 1974), p. 170.

71) Memmi, *Portrait du décolonisé*, p. 140.

통합에 실패한 책임을 이주민에게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만약 피식민자가 식민자의 문화에 동화됨으로써 식민 지배 구조를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차이를 없애버림으로써 식민자의 지배와 특권의 정당성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관점에 선다면, 식민자의 지배와 특권이 붕괴된 탈식민화된 현실에서 이전의 피식민자들이 이전의 식민자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주장 역시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일 수 있는 것이다. 『탈식민자의 초상』에서 맴미의 비난의 손끝이 전적으로 탈식민자와 이주민 그리고 그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는 이유 역시 맴미의 이러한 관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맴미의 인종주의론의 맹점 가운데 하나가 “인종적 역사주의”와 같은 서구 인종주의의 중요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데 있다는 사실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맴미의 주장처럼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를 본질화하고 열등성을 생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명백히 인종주의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만, 동시에 서구 문명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모범으로 내세우고 특정 인간 집단이 지닌 차이는 서구 문명에 견주어 볼 때 미개와 미성숙의 표징이므로 교육과 통제를 통해 제거되고 따라서 문명화될 수 있다는 논리 역시 근대 유럽 인종주의의 중요한 면모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주민들의 문화적, 종교적 차이를 무시한 채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기를 강요하는 논리와 정책이 심각한 인종주의적 차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식민자의 초상』에서 맴미는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 뿐 아니라 인종주의라는 표현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아마도 맴미의 인종주의론에서 보면 프랑스의 동화주의는 인종주의와 무관한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탈식민자의 초상』을 통해 드러난 이주민에 대한 공격과 편견을 근거로 맴미를 인종주의자로 비난한다.⁷²⁾ 식민주의와 인종주의, 소수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에 관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맴미를 인종주의자로 몰아세우는 일은 분명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탈식민자의 초상』을 놓고 볼 때 맴미는 한편으로는 서구 문명을 인류가 나아가야 할 보편으로 보는 유럽중심주의와 다른 한편으로는 차이의 본질화와

72) Jadallah, “Shibboleth within Albert Memmi’s Universalism.”

절대화에 기초한 “인종적 자연주의(racial naturalism)”⁷³⁾ 경도된 자신의 인종주의론의 본질적 한계 때문에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인종적 역사주의”의 덫에 걸려들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투고일자 2014. 7. 22 심사일자 2014. 8. 2 게재확정일자 2014. 8. 6〉

주제어 : 알베르 멤미(Albert Memmi), 인종주의(Racism), 식민주의(Colonialism), 탈식민화(Decolonization), 이주민(Immigrant)

73) Goldberg, *The Threat of Race*, p. 5.

〈국문초록〉

인종주의와 식민주의: 알베르 뎀미의 경우

김 용 우

식민주의를 다룬 고전적인 저서 『식민자의 초상에 뒤이은 피식민자의 초상』(1957)에서 알베르 뎀미는 인종주의가 식민주의를 예증하고 요약하며 상징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50년 후에 출간한 『아랍-무슬림과 몇몇 다른 탈식민자의 초상』(2004)에서 뎀미는 아랍 무슬림계 ‘이주민’의 삶을 다루면서 인종주의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이들 이주민들이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수준에서 인종주의적 차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많은 연구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의 문제를 배제한 뎀미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기존의 연구들은 초기와 후기 뎀미 사이의 사상적 단절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지만 이 논문은 단절보다는 연속에 착안한다. 요컨대 뎀미가 식민주의의 맥락에서 인종주의를 개념화할 초기단계부터 그는 유럽의 식민적 인종주의의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인종적 역사주의’를 포착하는 데 실패했고 이것이 오늘날 이주민들의 삶의 조건과 인종주의를 무관한 것으로 보게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뎀미의 한계는 부분적으로는 그의 인종주의 개념에서 ‘차이’를 절대화하는 경향과 동시에 그의 유럽중심적인 역사관 때문이다.

〈Résumé〉**Le racisme et le colonialisme: le cas d'Albert Memmi**

Yong Woo KIM

Dans son plus célèbre essai, *Portrait du colonisé précédé de portrait du colonisateur* (1957), Albert Memmi a affirmé que le racisme illustre, résume, et symbolise la relation coloniale. Il est remarquable que dans son *Portrait du décolonisé arabo-musulman et de quelques autres* (2004), publié près de 50 ans plus tard, Memmi refuse presque volontairement d'utiliser le racisme comme instrument conceptuel pour examiner le destin de nombreux individus issus de l'immigration. Comment pouvons-nous comprendre cette absence presque totale de racisme dans son analyse, en dépit de multiples pratiques de racialisation à tous les niveaux de la vie quotidienne des immigrés? Contrairement à l'opinion communément admise de jeune métamorphose radicale dans la vieille réactionnaire, ou radicale discontinuité de la pensée de Memmi, cette recherche propose de montrer que dans sa conceptualisation initiale du racisme dans le contexte du colonialisme, Memmi semble ne pas saisir l'aspect important du racisme colonial européen, "l'historicisme raciale". Cet échec est dû en partie à la tendance de Memmi de l'absolutisation de l'élément de la "différence" dans la conceptualisation du racisme et aussi à sa conception eurocentrique de l'histoire.

〈Summary〉**Racism and Colonialism: the Case of Albert Memmi**

Yong Woo KIM

In his most celebrated essay, *Portrait du colonisé précédé de portrait du colonisateur* (1957), Albert Memmi affirmed that racism illustrates, summarizes, and symbolizes the colonial relation. It is remarkable that in his *Portrait du décolonisé arabo-musulman et de quelques autres* (2004), a companion text to his first work, Memmi almost intentionally refuses to use racism as an analytical tool in examining the fate of Arab Muslim *immigrés*. How can we make sense of this almost total absence of racism in his analysis in spite of multiple practices of racialization at every level of daily life of *immigrés*? Contrary to the commonly held view of young radical metamorphosing into old reactionary, or radical discontinuity of Memmi's thinking, I will argue that in his initial conceptualization of racism in context of colonialism, Memmi seems to fail to grasp the important aspect of European colonial racism, "racial historicism." This failure is partly due to Memmi's tendency of absolutizing the element of "difference" in conceptualizing racism and also to his eurocentric conception of history.